

부산경영자총협회
BUSAN
ENTERPRISES
FEDERATION

부산경영자총협회

수신 CEO 및 임원 부산경총 제441호
참조 인공지능·업무 자동화에 관심있는 직원 2024. 8. 23.
제목 『부산지역 산업체 인공지능 리더 포럼』 개최 안내(8월)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의 성패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좌우된다’ 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산업체 임원 대상 『부산지역 산업체 인공지능(AI) 리더 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있어 적극 참여하시어 경영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교류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14:00-17:00
나. 장 소 : 부산대학교 제6공학관(컴퓨터공학관) 6208호
다. 대 상 : 부울경 지역 산업체 CEO 및 임원 (또는 AI에 관심있는 직원)
라. 주요내용 :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의 전략 및 전망, SAP ERP 도입 전략 등
마. 프로그램(안)
- 14:00~14: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 14:10~15:30 생성형 A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디바이스 및 엣지 AI 전략과 사례
-김정욱 상무 (델 테크놀로지스 AI 사업담당)
 - 15:30~16:50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SAP ERP 도입 전략
-전상수 이사 (메가존클라우드 SAP 사업부)
 - 16:50~17:00 종합토론 및 네트워킹



- 바. 참가비 : 무료
사. 신청서 제출기한 : 8월 28일(수) 18시 까지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신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jp21@bsef.kr / FAX 051-647-0210 (문의 : 070-4204-3398)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광수





■ 참가신청서



www.bsef.or.kr

회사명	성명	직위	휴대폰	E-mail

(1) 델테크놀로지스 김정욱 상무

	<p>델 테크놀로지스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l Technologies는 전 세계 180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종합 IT 기업 ▪ 세계 3위 PC 판매기업으로, PC 판매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과 서버, 스토리지 등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 그룹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 ‘델 AI 팩토리’는 PC,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및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델의 엔드-투-엔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AI 수요 충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음
	<p>김정욱 상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델 테크놀로지스 AI 사업담당 ▪ 前 인텔 코리아 글로벌 마케팅 영업 상무 ▪ 前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OEM 부장 ▪ 前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네트워크사업부 책임 ▪ 前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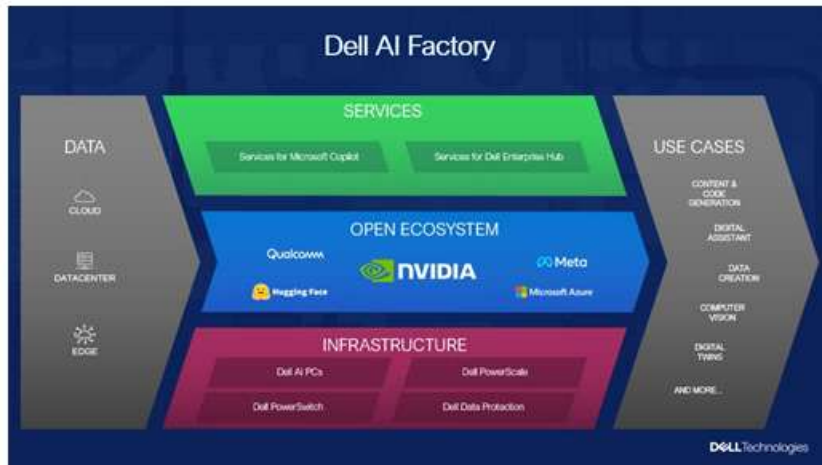
(2) 메가존클라우드 전상수 이사

	<p>메가존클라우드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관리 전문기업(MSP)으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부문을 포괄하여 핵심 역량을 다각화하고 있음. 메가존클라우드는 현재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상해와 북경,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매출액은 1조 5,000억 원을 달성했음 ▪ 메가존클라우드는 다양한 SAP 서비스들에 대하여 SAP on Cloud Total 서비스와 오픈링을 제공하고 있음. 클라우드 인프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AP 애플리케이션까지 SAP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SAP의 Gold Partner로서 최고의 SAP 시스템 구축, 최상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p>전상수 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메가존클라우드 SAP 사업부 SMB 부문 영업대표 ▪ 前 이노에버솔루션 SAP Sales 총괄 팀장 ▪ 중견중소기업(SMB) SAP Partner Award 수상

델 테크놀로지스, '델 AI 팩토리' 발표...대규모 AI 신속하게 도입, 구축하는 인프라·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최광민 기자 | 입력 2024.05.21 09:17 | 댓글 0

| 빠르고 안전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선보여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 현지시간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DTW 2024(Dell Technologies World)' 1일차 행사에서 '델 AI 팩토리(Dell AI Factory)'를 발표하면서 디바이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에 걸친 광범위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델과 델의 파트너사들이 구성한 개방형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들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델 AI 팩토리'는 PC,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및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델의 엔드-투-엔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델은 증가하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형 설계의 오퍼링들을 추가하며 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창의성과 생산성의 규칙을 다시 쓰는 AI PC

이날 델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Snapdragon X Elite) 및 스냅드래곤 X 플러스(Snapdragon X Plus)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AI 경험을 제공하는 신제품 코파일럿+ PC(Copilot+ PC) 제품군을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전문가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획기적인 성능과 배터리 지속시간을 갖춘 내장형 AI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는 GPU, CPU, NPU 전반에 걸친 로컬 컴퓨팅 및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은 혁신적인 PC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AI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기능

델 파워스케일 F910(Dell PowerScale F910) 올플래시 파일 스토리지는 최대 127% 향상된 성능과 뛰어난 상면 효율을 바탕으로 AI 워크로드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AI 인사이트 도출 시간을 단축한다.



DTW 2024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마이클 델 회장의 기조연설 모습

파워스케일 '프로젝트 라이트닝(Project Lightning)'은 새로운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parallel file system)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향후 '델 파워스케일' 제품군에 통합될 예정이며, 대규모의 복잡한 AI 워크플로우의 학습 시간을 단축한다.

AI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델 솔루션(Dell Solution for AI Data Protection)은 델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및 레퍼런스 구성을 기반으로 중요한 AI 애플리케이션 및 AI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AI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기능

델 파워스케일 F910(Dell PowerScale F910) 올플래시 파일 스토리지는 최대 127% 향상된 성능과 뛰어난 상면 효율을 바탕으로 AI 워크로드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AI 인사이트 도출 시간을 단축한다.

파워스케일 '프로젝트 라이트닝(Project Lightning)'은 새로운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parallel file system)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향후 '델 파워스케일' 제품군에 통합될 예정이며, 대규모의 복잡한 AI 워크플로우의 학습 시간을 단축한다.

AI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델 솔루션(Dell Solution for AI Data Protection)은 델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및 레퍼런스 구성을 기반으로 중요한 AI 애플리케이션 및 AI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확장된 네트워킹 포트폴리오로 AI 성능 가속화

델 파워스위치 Z9864F-ON(Dell PowerSwitch Z9864F-ON)은 브로드컴 토마호크 5(Broadcom Tomahawk 5) 칩셋과 최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뛰어난 처리량, 짧은 지연시간, 간편한 확장성을 제공하며, AI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성능을 2배로 높여3) 가장 까다로운 네트워킹 환경도 충족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델 파워엣지 XE9680(Dell PowerEdge XE9680) 서버는 브로드컴 400G PCIe 5.0세대 이더넷 어댑터를 지원한다. 파워엣지 서버와 파워스위치 Z9864F-ON, 그리고 400G PCIe 5.0세대 이더넷 어댑터의 조합으로 강력한 이더넷 패브릭을 구축하고 성능, 확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소닉 배포판(Enterprise SONiC Distribution) 혁신: '소닉을 위한 스마트패브릭 매니저(SmartFabric Manager for SONiC)'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닉 패브릭에 대한 단일 뷰를 제공하고 구축, 오케스트레이션 및 수명주기 관리를 간소화해 AI 성능을 향상시킨다.

업계를 선도하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으로 AI 가치 실현 시간 단축

델은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쉽게 AI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생성형 AI의 온프레미스 구축과 관련해 허깅 페이스와 협력한 최초의 인프라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델 엔터프라이즈 허브 온 허깅페이스(Dell Enterprise Hub on Hugging Face)'를 새롭게 소개했다. 업계를 선도하는 허깅페이스의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델 인프라에서 손쉽고 안전하게 맞춤형의 개방형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구축할 수 있으며 챗봇이나 고객지원과 같은 AI 서비스를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

델은 메타(Meta)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메타 라마 3(Meta Llama 3) 모델을 온프레미스 델 인프라 상에 간편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테스트 결과, 성능 데이터, 구축 레시피 등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서비스를 위한 델 솔루션(Dell Solution for Microsoft Azure AI Services)은 음성 트랜스크립션 및 번역 기능과 같은 AI 서비스의 구축 속도를 높여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위한 델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Dell APEX Cloud Platform for Microsoft Azure)' 상에서 구동된다.

확장된 서비스 포트폴리오로 AI 여정 간소화

델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AI 프로페셔널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솔루션을 위한 구축 서비스(Implementation Services for Microsoft Copilot solutions)는 깃허브, 보안, 원도, 및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파일럿 환경을 도입 시 필요한 전문가 지침을 제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델 엔터프라이즈 허브 온 허깅페이스 가속 서비스(Accelerator Services for Dell Enterprise Hub on Hugging Face)는 허깅 페이스 내 델 포털을 사용할 때 신속한 AI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툴 및 모델을 선택하고 활용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언을 제공한다.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의 총괄 사장은 "AI는 전례없는 속도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다. 이제 모든 데이터센터는 AI의 속도와 규모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AI PC는 생산성 및 협업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델은 광범위한 '델 AI 팩토리' 포트폴리오와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온프레미스와 엣지,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AI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델 파워스케일 F910은 5월 중 출시되며, 'AI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델 솔루션'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델 파워스위치 Z9864F-ON 및 엔터프라이즈 소닉 배포판의 향상된 기능은 8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마이크로 애저 AI 서비스를 위한 델 솔루션은 2사분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델 엔터프라이즈 허브 온 허깅페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솔루션을 위한 구축 서비스는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도입이 가능하다. 델 엔터프라이즈 허브 가속 서비스 온 허깅페이스는 5월 말부터 북미, EMEA(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아태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SAP, “비즈니스 핵심은 AI·클라우드 전환”

홍주연 기자

입력 2024.07.09 16:34수정 2024.07.09 17:14

SAP가 기업들이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를 위해선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30개의 인공지능(AI) 시나리오를 도입했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스콧 러셀(Scott Russell) SAP 최고매출책임자(CRO)는 9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SAP 나우 코리아 2024’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30년간 비즈니스를 이어온 한국은 SAP에게 전략적 시장이며, AI시대에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P 나우 코리아는 글로벌 ERP 솔루션 개발 선두 기업 SAP가 최신 솔루션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러셀 CRO는 이날 클라우드 전환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SAP는 3년 전 ‘라이즈 위드 SAP(Rise with SAP)’를 출시하며 온프레미스(구축형) 기반이던 ERP의 클라우드화를 선언했다. 라이즈 위드 SAP는 온프레미스 ERP를 AI 기반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고 이를 SAP가 관리·최적화하는 솔루션이다. 이용자의 직무를 분석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스콧 러셀(Scott Russell) SAP 최고매출책임자(CRO). / 홍주연 기자

SAP에 따르면 클라우드 전환을 선택한 한국 고객사는 온프레미스 고객과 비교해 매출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금 전환 사이클은 42% 빨라지고 재고 수준은 10% 낮아졌다. 통상 5년 주기로 이뤄지던 업그레이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즉각 최신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LG그룹, 현대차그룹, 삼성물산, LX세미콘 등이 SAP의 ERP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러셀 CRO는 "SAP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이 곧 AI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AI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SAP는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에 AI 솔루션을 탑재해 업무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0개가 넘는 AI 시나리오를 도입했으며, 향후 100개 이상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할 예정이다. 챗GPT, 제미나이, 미스트랄 AI 등 주요 대형언어 모델(LLM)을 포함하는 생성형 AI 허브를 통해 고객이 자체 AI 사용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 SAP AI 솔루션의 차별점으로 AI 챗봇 '줄(Joule)'을 언급했다. SAP의 모든 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줄'이 연결돼 있어 언제든지 자연어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지 않아도 줄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어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다.

러셀 CRO는 "모든 SAP 솔루션에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탑재하게 될 것이며, 한국어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